

# 在日韓人の 歲時風俗에 관한 研究\*

魯 成 煥\*\*

차례

I. 序論	IV. 韓國 歲時風俗의 繼承과 變化
II. 調査地의 概要	V. 結論
III. 在日韓人에게 受容되는 日本의 民俗	

## I. 序 論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지닌 정치적·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 말미암아 생활의 습속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명절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성의 행렬일 것이다. 요즘은 시골의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 도회지를 찾는 역귀성도 현대사회가 낳은 새로운 민속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이동이 국내인 경우에는 그나마 생활에서 오는 습관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태어나서 자라난 곳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 살게 될 때 그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하나

---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5-A00007)

\*\* 울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더욱더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학 또는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테마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일 한인사회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임에 틀림없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재일 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재일 한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서는 두드러진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가령 문화인류학에서는 이광규<sup>1)</sup>·이문웅<sup>2)</sup>의 개관적인 재일 한인에 대한 보고서를 비롯한 허점숙에 의한 무속과 불교의 습합을 중심으로 분석한 재일 한인의 신앙에 대한 연구가 있고<sup>3)</sup>, 사회학에서는 이종구·장화경의 재일 교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sup>4)</sup> 등이 바로 그 예들이다. 여기에 비해 민속학 분야에서는 재일 한인에 대한 관심은 거의 희박하다. 그 중에서 드물게도 김화경과 김양기의 연구가 있는데, 김화경은 재일 한인에서 설화를 채집하고 그것이 일본문화 속에 어떻게 변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sup>5)</sup>, 김양기는 아이덴티티를 형성에 중요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의 문제를 앙케이트를 통하여 분석한 바가 있다.<sup>6)</sup>

민속학이 재일 한인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학적 견지에서 후쿠오카 야스노리(福岡安則)는 재일 한인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가 있고<sup>7)</sup>, 문화인류학적인 견지에서는 하라지리 히데키(原尻英樹)의 폭넓은 연구<sup>8)</sup>를 비롯하여 이이다(飯田剛史)<sup>9)</sup>·오카자키(岡崎精郎)·타니 토미오

1) 이광규, 『재일한국인』(일조각, 1983년)

2)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 세계 한민족 총서(4)-』(통일원, 1996년)

3) 허점숙, 「재일한국인의 무속신앙」 『일어일문학연구(40)』(한국어어일본학회, 2002년)

4) 이종구·장화경 「재일교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이쿠노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14)』(성공회대학, 2000년)

5) 김화경, 「재일교포의 민속변용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6)』(한국구비문학회, 1997년), 19쪽

6) 김양기, 「일본 한인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세계속의 한국문화 - 재외 한인의 생활과 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7) 福岡安則, 『在日韓國. 朝鮮人』(中公新書, 1993년)

8)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講談社, 1998년)

9) 飯田剛史,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世界思想社, 2002년)

(谷富夫)에 의한 오사카지역 재일 한인의 신앙과 제의에 대한 연구<sup>10)</sup> 등이 있는데 비하여, 민속학에서는 시마무라(島村恭則)의 오사카, 시모노세키의 재일 한인을 중심으로 한 민속지적인 연구<sup>11)</sup>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민속학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외로 어느 분야에서든 세시풍속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세시풍속은 인생 의례와 함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시간의 민속으로서 민속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 그리고 사회학에서도 기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서도 그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마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세시풍속과 통과제의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이광규가 그것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설날에는 재일 동포들은 차례를 지내고 친지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또 신사나 사찰로 소원 빌러 간다.”고 했고, “단오에는 남자 어린이가 날로 잉어를 형뎀으로 만들어 띄우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했으며, “추석은 차례를 지내고 떡을 하여 먹는다.”고 했으며, “동지에는 팔죽을 해 먹으나 젊은층에서는 의식하지 않는다.”<sup>12)</sup>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설명은 너무나 간략하여 세시풍속이란 일년이란 시간을 두고 일본 민속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수용되고 있으며, 또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 중 어떠한 것들이 그 변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살아 남아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등에 알려고 했을 때 그의 설명은 매우 부족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재일 한인들이 겪는 세시풍속은 그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감히 세시풍속

10) 岡崎精郎, 「大阪朝鮮-在阪朝鮮人と朝鮮寺の問題を中心に-」 『大阪研究(1)』 <宮本又次編> (清文堂, 1967年). 谷富夫 「朝鮮寺-在日韓國, 朝鮮人の巫俗と信仰-」 『現代都市の民俗宗教-生駒の神神-』 <宗教社會學の會編> (創元社, 1985年) 각각 참조

11) 島村恭則, 「在日朝鮮人の民俗誌」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9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1年). 「境界都市の民俗學-下關の朝鮮半島系住民たち」 『越境』 <藤原徹編> (朝倉書店, 2003年)

12) 이광규, 앞의 책, 173쪽

을 중심으로 재일 한인들의 생활을 조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일본문화가 어떠한 충돌을 일으키면서 수용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調査地의 概要

조사지는 일단 관서지역의 오사카(大阪)와 나라(奈良) 그리고 야마구찌현(山口縣)의 하기시(萩市)를 잡았다. 오사카를 선택한 이유는 63만여 명의 재일 한인 중 약 18만 명이 오사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오사카는 재일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특히 이쿠노구(生野區) 전체 주민의 25%가 재일 한인이라 할 만큼 일본의 어느 지역보다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다. 당연히 그곳에는 코리안 타운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 노인들을 위한 경로시설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곳 한국인들은 한국시장을 형성하여 생활에 필요한 한국과 관련된 각종 다양한 상품들을 갖추고 일본 전역으로 팔고 있다.

그리고 그곳의 쓰루하시(鶴橋)라는 곳은 일본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하다. 저녁만 되면 그곳의 지하철역에는 한국의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불고기 냄새로 가득 찬다. 그러한 탓인지 관서지역의 일본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면 한국 진수의 불고기 맛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재일 한국인들은 비교적 일본사람들의 영향을 적게 받고 독자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곳에 사는 재일 한국인의 세시풍속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사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그와는 반대로 일본인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한국인의 세시풍속도 우리의 관심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인 사회에서 외로운 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민속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집단적 거주형태의 재일 한국인과 분산된 거주형태의 재일 한국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재일 한국인의 세시풍속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분산된 거주형태를 취하는 도시로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나라(奈良)와 하기(萩)이었다.

나라는 오사카와 인접해 있는 작은 도시이다. 우리나라 경주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일본 최초의 수도로서 고대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시내에서 조금만 교외로 나가도 들뜬으로 이어지는 농촌풍경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므로 그곳의 지역민들의 성향도 비교적 보수적이다. 이러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재일 한인들은 한곳에 밀집해 살고 있는 오사카 주민들 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변용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기 또한 우리나라 동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야마구찌현(山口縣)에 속한 도시로 인구가 4내지 5만 정도 되는 조그마한 중소도시이다. 일찍부터 도예산업이 발달하였고, 역사적으로는 명치유신(明治維新)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관광지로써도 각광을 받고있는 곳이지만, 유동인구가 거의 없으며 나라(奈良)와 같이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다. 더군다나 주변에 큰 도시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고유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도 하다. 특히 그곳에 사는 재일 한인은 민단체와 조총련계 모두 합하여 16여 가구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적으로는 관서지역의 오사카와 나라에 비해 매우 열세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일본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현지조사는 3차례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예비조사적인 성격으로 2001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오사카의 쓰루하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2차는 2002년 1월에 오사카 일대와 나라시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3차는 2003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하기시를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통하여 많은 재일 한인들을 만났다. 나라에서는 10명, 오사카에서는 13명, 하기에서는 14명의 개인 또는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오사카와 나라와 같은 관서지역에서는 20대, 30대를 비롯한 40대, 50대, 60대, 심지어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하기에서는 주로 50대로부터 90대에 이르는 중장노년층의 사람들을 주로 많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재일 한인의 세시풍속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는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집단을 이루고 사는 오사카 지역이나 일본인 사회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나라나 하기와 같은 지역이나 그들의 세시 풍속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거주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의 문화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연구는 어느 특정지역에 관한 연구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재일 한인사회의 세시 풍속에 관한 연구가 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지역적인 특징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Ⅲ. 在日韓人에게 受容되는 日本의 民俗

나라에 사는 박장화씨는 18세 때 북해도의 탄광으로 강제 징용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사 당시 그의 나이는 80세였다. 그는 밧테리 집을 하여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으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는 별 곤란 없이 살고 있다. 그는 지식들을 모두 민족학교인 건국학교로 보낼 정도로 민족의식이 비교적 높은 분이었다. 더군다나 민족소사를 나온 우리들에게도 거부하지 않고 저너까지 대접할 정도로 비교적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일본의 세시풍속에 대해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은 일본인들이 지키는 것이지만 한국인인 자신들은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그 노인의 집 현관까지 갈 기회가 있었던 우리들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집 현관에 일본인들이 설날이 되면 장식하는 「시메나와」라는 금줄이 엄연히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그 밖의 일본 민속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본인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본 민속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에 대해 하나 하나 짚어가지 않으면 재일 한인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일본인의 달력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력이 표시된 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음력을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오늘날 일본인들은 세시풍속의 기준을 모두 양력으로 삼고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민속은 정치 이념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쉽다. 실제로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다. 그러한 구체적 인 실례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1. 정월의 민속

### 1) 설날

조사 당시 55세였던 고정숙씨는 오사카 이쿠노구에서 불고기 집을 경영하고 있는 여자 실업가이다. 성인식 때는 한복을 입고 참석할 정도로 비교적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한 그녀가 설날이 되면 집의 출입구에는 “시메나와”라는 금줄을 내걸고, 또 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카도마쯔”라는 것으로 장식한다. 그리고 “카가미모찌”라는 거울 떡을 구입하고, 일본인들과 똑같이 검은콩·청어알·멸치조림·떡·우영·연근 등으로 “오세치”라는 요리를 준비한다고 한다. 이처럼 그녀의 가족들이 보내는 설날은 여느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메나와”란 한자로는 “注連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원새끼로 만든 금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사용하지만 일본인들은 신이 머무는 곳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출입문 위에 걸려 있다는 것은 그 곳이 신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날이 되면 일본인들이 출입문 위에 장식하는 이유는 자신의 집에 설날기간 동안 보통 때와는 달리 신이 머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리고 “카도마쯔(門松)”는 화분과 같은 용기에다 소나무 가지를 꽂고 그 뒤

13) 노성환, 『일본설날의 민속문화』 『첫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교보문고, 1997년). 202-203쪽

에다가 대나무 3개 정도를 꽂아 세워놓는 설날의 장식물이다. 이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경사스러운 의미가 깃들여 있는 나무로 보고, 그것을 통하여 신이 내린다고 일본인들은 믿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트리와 같이 하나의 빙의목이었던 것이다<sup>14)</sup>.

한편 “카가미모찌(鏡餅)”는 쌀로 만든 떡으로 그 모양이 우리나라 진빕과 같이 둥글다. 그것을 일본인들은 새해의 신에게 바치기 때문에 신이 머무는 “카미다나(神棚)<sup>15)</sup>” 또는 “도코노마(床間)<sup>16)</sup>”에 놓아 둔다. 그 때 세기에다 각각 크기가 다른 두 세 개의 “카가미모찌”를 포개어 얹어놓고 그 사이에나 맨 위에 꽃감, 굴거리 나무, 다시마, 밀감, 큰 새우 등으로 장식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7)</sup>.

“오세치요리”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설날음식이다. 고씨가 준비했다는 검은 콩·청어알·멸치조림·떡·우엉·연근 등은 일본인들은 그것에다 각각 의미를 부여하면서 먹고 있다. 콩은 일본어로 “마메”라 하는데 근면, 성실을 의미하고, 멸치조림은 “코마메”라 하는데, 이는 풍요를 상징하며, 우엉 또한 풍년과 안정을 의미하며, 연근은 구멍이 뚫려 있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하여 길한 음식으로 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설날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3가지 요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본인들은 삼헌효(三獻肴)라 한다. 그것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 나누어 관동과 관서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즉, 도오쿄오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역에서는 검은 콩·청어알·멸치조림이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역에서는 검은 콩·청어알·우엉이다. 검은콩과 청어 알은 모두 공통되지만, 멸치조림과 우엉이 다를 뿐이다<sup>18)</sup>. 고씨는 오사카에 살면서도 이것에 상관치 않고 양쪽의 특성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4) 노성환, 앞의 책, 201쪽

15) 집 안에 신을 위해 설치해놓은 제단을 말한다.

16) 객실 상좌에 바닥을 조금 높여 꾸민 공간을 말하며, 보통 그곳에는 족자를 걸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품이 놓여져 있다. 이 공간이 일본 가옥에 있어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17) 노성환, 앞의 책, 208-209쪽

18) 노성환, 「일본의 설날음식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20)』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년), 226쪽



하기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전북 익산출신인 구보은씨는 하기의 한인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은 교포 1세이며, 또 그의 국적이 북한(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일본의 민속에 감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시메나와·카도마쯔·카가미모찌는 물론 일본식 떡국인 조오니까지 준비한다고 한다. 그는 또 설날에 普祥寺라는 사찰로 하츠모오데(初詣)까지 간다고 한다.

하츠모오데란 일본인들이 정초에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신사나 절에 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설날의 행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일 한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앞의 고정숙씨는 설날 아침 집 부근에 있는 미유키모리신사와 스미오시신사에 간다 한다.

나라현의 사쿠라이(櫻井)에 사는 60대 남성 정삼수씨는 민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조국에 대한 의식도 강하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속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설날이 되면 단잔신사(談山神社)로 “하츠모오데”를 간다고 한다. 많은 신사들 중에서 그곳을 택하는 이유는 그 신사를 세운 사람들이 소가씨족(蘇我氏族)이며, 그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sup>19)</sup> 그러한 예는 같은 나라의 호케지초(法華寺町)에 사는 조정호씨(55세)의 경우에도 찾을 수 있는데, 그가 매년 하츠모오데를 카스가대사(春日大社)에 가는 것은 카스가대사를 세운 후지와라씨족(藤原氏族)의 선조인 가마타리(鎌足)가 고대 한국인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up>20)</sup>

19) 어느 정도 그의 설명에는 신빙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蘇我氏의 시조인 蘇我滿智는 5세기 g반에 백제에서 건너간 木滿致라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20) 그가 말하는 후지와라노가마타리(藤原鎌足)는 614-669년에 걸쳐 활약했던 중앙의 호족으로서 나카노오에노우지(中大兄皇子)와 함께 大化改新을 일으켜 蘇我氏를 타도하고 율령체제를 갖추는 등 개혁정치를 실시한 인물이다. 그 공로로 천황으로부터 후지와라(藤原)이라는 성씨를 하사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나카토미케코(中臣御食子)이다. 그의 조상인 中臣氏가 고대 한국계라는 설은 별로

이처럼 “하츠모오데”를 가능하다면 한국과 관련되었을 지도 모르는 신사와 절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특별한 의미 없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다가 보면 한국에게는 매우 좋지 못한 인물이 모셔져 있는 신사에 가는 경우도 속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하기의 한국인들이다.

하기의 한국인들 가운데 “하츠모오데”를 쇼오인진사(松陰神社)에 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하기를 대표하는 인물인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이 신으로 모셔져있기 때문이다. 쇼오인은 에도막부를 타도하려는 사상을 가진 국학자이자 명치유신의 핵심멤버들을 제자로 길러낸 교육자이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자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악명을 날린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도 바로 그의 제자이었다. 그러한 그는 하기의 지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게는 좋지 못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배경도 의식하지 않은 채 훌륭한 교육자와 사상가로서 존경받는 인물로만 기억하고, 또 그곳이 자신의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택하여 “하츠모오데”를 가고 있는 것이다.

## 2) 七草粥

한편 일본인들은 1월 7일이 되면 “나나쿠사가유(七草粥)”라 하여 봄철에 나는 일곱 가지 나물로 만든 죽을 먹는 습속이 있다. “나나쿠사(七草)”란 일반적으로 미나리·냉이·떡쑥·별꽃·광대나물·순무·무를 말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넣어서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늘날에는 냉이를 “나나쿠사”라 하여 그것만을 넣어 만든 죽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민속행사이다. 앞의 조정호씨와 고정숙씨는 이러한 “나나쿠사가유”를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일한인들은 “나나쿠사가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세시풍속의 일환으로 실제로 만들어 먹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것은 사실 도회지에 사는 일본 사람들조차도 의식하여 먹는 사람들도 적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조정호씨와

---

주장된 일이 없다. 그를 한국계라고 믿는 조씨는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정숙씨는 일본의 세시풍속에 흠뻑 젖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小正月

그리고 1월 15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작은 설날(小正月)이라 부른다. 이 때 많은 일본인들은 시메나와를 한곳에 모아 태우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달집 태우기”와 유사하다. 이를 일본에서는 “톤도야키”라 한다. 그러나 오사카에 사는 교포 2세 임인순씨(53세)는 “시메나와”를 집 마당에서 태우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 즉,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마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일본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이 마을 공동체적인 성격이 약한 도회지의 생활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일본사람들조차도 도시에서는 “톤도야키”의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라시의 조정호씨에 의하면 옛날에는 “시메나와”를 모두 한군데 모아 “톤도야키”를 하였으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이 거의 일반적인 것이다.

## 2. 2월의 민속

나라현 텐리시(天理市)에 사는 권홍일씨는 교포 2세로 조사 당시 나이는 54세였다. 그는 2월의 입춘의 하루전인 “세쯔분(節分) 날”에 “마메마키(豆播)”의 행사를 했었다 한다. 그 행사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계속하였으나 어른이 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한다.

「마메마키」란 흔히 “鬼는 바깥, 福은 안으로!”하고 외치며 콩을 뿌려 악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追儂의 행사이다. 이는 원래 중국에서 나라시대(奈良時代) 때 일본으로 전래되어 궁중에서 행하여 졌던 것이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에 접어들어 일반 민간에 널리 퍼져 오늘날과 같이 대대적으로 벌이게 된 연중행사이다.<sup>21)</sup> 그러므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節分은 옛날 달력에는 일년의 마지막 날로 되어있다. 즉, 설날 그믐날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도깨비로 상징되는 액운을 쫓고 행운을 상징하는

21) 永田久, 『年中行事を科學する』(日本經濟新聞社.1989年). 48-49쪽

복을 부르는 행사인 셈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에서 도깨비의 가면과 콩을 구입하여 부모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콩을 도깨비를 향해 던지며 “뿔는 바깥, 福은 안으로!”라고 외치면서 이 행사를 즐기는 것이 보통이다. 오사카에 사는 하호길씨도 그러한 것들을 가게에서 구입하여 아이들과 “마메마키”를 했다 한다. 그 때 뿌려진 콩을 자신의 나이 보다 하나 더 주어 먹으면 좋다고 하는 속신마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 행사는 별 거부감 없이 “마메마키”는 재일 한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행사가 일본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하는 민속행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모두 이 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그러한 민속행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콩과 가면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메마키”는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부모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이의 기대를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버리는 부모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이 날은 호랑가시 나무 가지에 불에 구운 정어리 머리를 끼워 현관이 걸어놓는 민속이 관서지역에는 있다. 앞의 권홍일씨는 오늘날에도 이 민속을 지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민속이 재일 한인들에게 널리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사는 재일 한인들은 그러한 풍속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었거니와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하기에서는 이러한 풍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권홍일씨는 지역의 민속요소까지도 수용하고 있었다. 그는 왜 그렇게 일본의 풍속을 지키느냐 하는 물음에 “일본에 사는 이상 이웃과 맞추어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대도시보다도 농촌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 일본의 영향을 받기 쉽고, 또 한국인들만 사는 곳 보다 일본인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3. 3월의 민속

#### 1) 히나마쯔리(雛祭)

3월의 대표적인 민속으로서는 3월 3일 “히나 마쯔리(雛祭)”가 있다. 이 날 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인형을 장식하고 축하한다. 그 인형들을 “히나 인형”이라 하는데, 대개 아이의 외갓집에서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딸이 없는 집에서는 이것과 무관하게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재일 한인 작가 강신자씨는 이 날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집에는 딸이 4명이 있었다. 나는 3번째이다. 그러나 “히나 마쯔리”를 해본 적이 없다. “히나 인형(雛人形)”조차 없었다. 매년 “히나 마쯔리”의 때가 되면 근처 친구 집에 장식되어 있는 “히나 인형”이 무척이나 부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 “엄마 왜 우리 집에서는 ”히나마쯔리“를 하지 않는거야?”하고 물으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 없단다.”고 대답하곤 했다. 어머니의 대답이 언제나 궁색하다고 느끼면서 언니들과 손으로 직접 “히나 인형”을 만들며 놀았다. 파란 색종이로는 황후와 황비의 인형을 만들었고, 빨간 색종이로는 공주의 인형을 만들어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우리 3명의 자매들은 즐겨워했다<sup>22)</sup>.

그녀는 이제 40대로 막 들어선 중년여성이다. 이러한 회고담은 그 세대들이 겪었던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실제로 오사카 야오(八尾)에 사는 송정분씨(62세)는 귀신 붙는다 하여 하지 않았으나, 손녀들이 자라나서 오늘날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한다.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일지도 모른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인형을 장식하고 축하하는 세시풍속은 찾기 어렵다. 송정분씨가 “귀신 붙는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인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세대 때에는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의 오랜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인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손녀딸들을 남들과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쉽게 히나마쯔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기의 딸이 일본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그 사이에서 외손녀가 태어났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는 입장에서 외손녀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특히 많았다. 나라에 사는

22) 姜信子, 『ごく普通の在日韓國人』(朝日文庫, 1990年), 48쪽

박순자씨(62세)도 거금을 투자하여 일본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외손녀에게 선물을 했다 한다.

강신자씨가 종이 접기로 만들었던 히나인형은 경제적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파는 인형은 무척이나 비싸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지 않으면 보통 도시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 그리하여 아예 하지 않는 집도 드물지 않다. 실제로 하기(萩)에서는 이를 행하고 있는 집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 히나 인형으로 장식한 케익 또는 장난감을 선물하거나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는 집도 많았다.

오사카에 사는 임인순씨(53세)는 그 날 특별히 히나인형을 준비하지 않았으나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였는데 “치라시시”<sup>23)</sup>를 먹었다 하고, 그녀의 동료인 강태자(62세)씨도 “치라시시”를 먹었다고 한다. 한편 그 날 집에서 감주(甘酒)를 만들어 먹는 집도 적지 않다. 오사카에서 사물놀이와 한국의 전통악기 판매를 하는 고범택씨(29세)는 외식과 함께 감주를 만들어 먹었다 하며, 나라에 사는 이종옥씨(63세)도 감주와 白酒를 마셨다 한다. 이러한 특별식은 일본인의 풍속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3월의 일본 민속도 아이를 통하여 제일 한인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 2) 春分과 秋分

일본인들은 춘분과 추분을 히간(彼岸)이라 하여 매우 중시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날의 전후 3일간 모두 7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불교사원에서 피안법요가 열리기 때문에 피안이라는 말이 생겨났지만, 그보다 태양과 관련된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많다. 즉, 태양이 정동에서 올라 정서로 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믿어져 그 날 하루 태양을 향해 빌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속신이 있다. 그리하여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서쪽으로 따라가면서 그 방향에 있는 사원이나 신사에 들러 자기 소원을 빌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런 만큼 제일 한인사회에서도 이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3)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맞춘 밥을 그릇에 담아 생선·조개·달걀부침 등을 얹은 초밥.

그보다 일본인들은 이 날을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는 법정공휴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간다. 특히 조상숭배의 식이 강한 한국인들도 이 날에 조상의 묘지를 찾는 자들이 많다. 하기에 사는 김영호씨 가족은 설과 추석 이외에 봄, 가을의 피안 때 성묘를 가곤 한다. 그리고 그 때 “오하기”<sup>24)</sup>라는 떡과 붓순나무(樅) 가지<sup>25)</sup> 그리고 묘지에 꽃을 꽂은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것 또한 지역문화와 밀착된 일본 민속의 수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4. 5월의 민속

5월의 세시풍속으로 단연 으뜸은 5일의 단오제(端午祭)이다. 이 날은 여자들이들만을 위한 3월 3일과는 다르게 남자아이들을 위한 명절이다. 이광규는 이 날에 대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선물을 주고 잉어를 형겅으로 크게 만들어 띄워준다.”고 설명하면서 “재일 한인들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풍속에 따른다. 집에 따라서는 떡을 하여 먹기도 한다.”라고 간략하게 지적한 바 있다<sup>26)</sup>.

오사카의 야오(八尾)에 사는 김순옥씨(52세)는 서울 소재 H대학 농구부출신으로 교포 2세와 혼인하여 일본에 정착한 중년 여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통풍속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들만 3명이 있어 5월 단오 때의 행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고이노보리(鯉登)”를 장식하였을 뿐 아니라 5월의 인형도 “도코노마”에 장식했다고 한다. 하기에서도 14가구 중 4집이나 “고이노보리”를 매달았다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이노보리”란 이광규가 말하는 “잉어를 형겅으로 크게 만

24) 참쌀에 햅쌀을 섞어 가볍게 찐 다음 둥글게 빚어 팔소, 콩고물 등을 묻힌 떡. 이를 보타모찌(牧丹餅)라고도 함.

25) 일본의 민속에서 의례상 신에게 바치는 나무로는 비쭈기 나무를 사용하고, 부처에게 바치는 나무로는 붓순 나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조상은 보통 부처라는 말로 통용되고, 또 조상숭배와 묘지관리는 불교가 하기 때문에 성묘를 갈 때 가지고 가는 물품으로 붓순나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재일 한인들에게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6) 이광규, 앞의 책, 173쪽

들어 띄워준다.”고 설명에서 보듯이 형겅으로 만든 잉어를 말한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을 머금고 힘차게 펄럭이게 된다. 이를 집 마당에 길다란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매달아 놓고는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잉어가 급류를 타고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과 같다 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것을 매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즉, 중국의 용문에는 하류에서 여러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거슬러 올라오는데, 잉어만이 폭포를 타고 올라가 용이 되었다는 등용문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잉어가 급류를 타고 힘차게 올라가 용이 되듯이 자신의 자식도 힘차게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하여 입신출세하기를 바랬던 것이다<sup>27)</sup>.

이러한 풍속은 중국에는 물론 한국에도 없다. 그러므로 엄연히 일본의 특유한 민속임에 틀림없다. 마당이 넓지 않은 도시의 주택이거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을 구입하여 현관 또는 베란다에 매달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5월의 인형이란 일본의 역사 또는 전설상으로 활약했던 영웅적인 인물들을 인형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장의 인형을 갑옷과 투구를 입혀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대장부다운 기상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 날도 특별식이 있었다. 나라의 김정치씨는 “치마키”를 먹었다 하고, 오사카의 한혜숙씨는 “카시와모찌”를 먹었다 하고, 같은 오사카의 카나무라(金村)·하호길·임인순·강태자씨 등은 “치마키”와 “카시와모찌” 모두 먹었다 한다.

치마키(粽)는 원래 중국에서 전래된 음식으로 떠나 조릿대의 잎에 싸서 찜 찔떡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오날 초나라 충신 굴원을 기리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카시와모찌(柏餅)”는 떡갈나무 잎으로 싸 팔소가 든 찰떡이다. 이것도 “치마키”와 마찬가지로 5월 단오에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풍속을 제일 한인은 스스럼없이 받아들여 단오를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창포를 이용하는 행사도 많았다. 창포를 일본인들은 「쇼오부」라고 하

27) 노성환, 『일본의 단오민속』 『경산문화연구(6)』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2002년), 49-50쪽



는데, 그것은 무도를 숭상한다는 「尙武」 그리고 싸움의 승패를 가리는 「勝負」와 발음이 같아 무사들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리를 잡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액운을 물리쳐 주는 주술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sup>28)</sup>. 그리하여 창포는 단오의 상징적인 식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날 일본인들은 창포탕에 목욕하는 경우가 많다. 창포탕에는 여성이 먼저 들어가면 좋다고 하며, 그 때 창포 잎으로 머리띠를 하고 목욕하면 일년 내내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는 속신마저 생겨나 있다<sup>29)</sup>. 창포탕의 목욕은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 이후 일반 민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단오가 되면 대중목욕탕에서도 이 날 일부러 창포탕을 만들어 찾아오는 고객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기에서는 대중목욕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해야 하고, 따라서 창포탕을 즐기려면 자기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기의 구보은씨와 노재윤씨는 매년 단오가 되면 창포탕을 즐긴다 한다. 이러한 일본의 민속이 제일 한인 사회에서도 어느덧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5. 칠월의 민속

### 1) 칠석

칠월의 대표적인 민속은 칠석(七夕)과 중원(中元)이다. 먼저 칠석을 살펴보면 7월7일 칠석은 일본도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 전설이 있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 것은 일본인들은 조릿대에다 자기소원을 적은 색종이를 달아놓고 기원하는 일이다.

나라에 사는 유대윤씨(58세)는 교포 2세이다. 그녀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칠석의 행사로서 조릿대를 꺾어다가 그 가지에다 색종이를 붙이고는 현판에다 장식을 해두었다고 한다. 그녀의 말에서 보는 것처럼 이 행사 또한 어린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라의 이종옥씨(63세)와 하기의 김대호(56세)씨

28) 노성환, 앞의 논문(2002년), 63쪽

29) 桶口清之, 『日本の風俗の迷』(産報, 1984年), 77쪽

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칠석의 조릿대를 세웠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 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 나라에 사는 30대 김정치씨도 자신이 유치원에 다녔을 때 유치원에서 조릿대를 주어 집의 현관에 장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조정호 씨는 손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사카의 박순자씨(62세)는 현재 손자가 없는데 앞으로 손자가 있으면 조릿대 장식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행사 또한 어린아이와 직접 관련 있는 세시풍속임에 틀림없다.

일본 대부분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이 날에 조릿대를 구해 색종이에다가 자자 소원을 적어 걸어두고 칠석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런 다음 조그마한 조릿대는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칠석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재일 한인들도 아이들을 통해 이러한 일본의 민속을 익히며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조릿대는 대개 1주일 가량 집의 현관에 매달아 두었다가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 2) 중원(中元)

중원은 7월 15일을 말한다. 많은 재일 한인들은 중원을 중시했다. 특별한 경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일 한인은 이 날을 기해 거래처 사람들과 평소에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중원을 중시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사람들이 선물을 보내오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원의 풍속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삼원(三元)이라 하여 정월 15일을 상원, 7월 15일을 중원, 10월 15일을 하원이라 했다. 원래 이는 도교에서 나온 사상으로 천신인 태을(太乙)을 모시며 속죄의 날로서 하루 종일 마당에 불을 피우는 풍습이 있었다. 원이란 1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1년을 3등분하는 사교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옛날에는 매달 보름을 1개월이 시작하는 날로 생각하고 그 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sup>30)</sup> 또 1년을 2등분하여 정월과 7월을 그 시작으로 하는 사교가 있어서 중국의 삼원 중 상원과 중원이 자연스럽게 1월과 7월에 수용된

30) 鈴木業三, 『日本年中行事辭典』(角川書店, 1977年), 502-503쪽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하원이 수용되지 않았던 것은 원래 이 날을 특별시하는 풍습과 근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원은 중국이나 한국에서처럼 우란분절과 결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특히 일본에서는 그것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서도 정착했다. 그 때문에 중원이 다가오면 백화점과 상가에서는 대대적으로 상품을 선전하며 중원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어떠한 문헌에도 그러한 것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명치년간(明治年間)에 에도시대의 생활상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회본풍속왕래(繪本風俗往來)』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을 기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원래 우란분절을 기해 살아있는 조상(부모)에게 선물을 보내는 풍습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도시의 발달로 생활양식도 변화하게 됨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인간관계가 확대되어 부모뿐만 아니라 평소에 신세 진 사람 또는 상사·은인 등에게 계절에 맞는 선물을 보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고 받는 물건도 시대에 따라 변하여 오늘날에는 주로 맥주·과일·과자·소면·쥬스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친척끼리는 잘 교환하지 않는다. 그만큼 중원은 사회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재일한인들이 이러한 풍속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일본인들과 거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마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풍속은 사회적 관계를 증시하면 할수록 아무런 갈등 없이 수용되어 활용되었던 것이다.

## 6. 8월의 민속

8월 15일을 일본인들은 “오봉”이라 하여 설날과 함께 2대 명절로 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묘지를 찾곤 한다.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나라의 추석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보통 일본사람들은 매년 오봉이 다가오면 먼저 가까이 있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청소를 하고 조상의 위패를 모셔 둔 불단의 안을 깨끗이 정리한 후 정화수를 바친다. 그리고 오봉을 전후로 자신의 종파에 속해있는 사찰의 승려를 청해 조상을 위해 독경을 올리고 가족들과 함께 조상의 무덤에 성묘를 다녀오는 것으로 오봉의 행사를 모두 마친다.<sup>31)</sup>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오봉은 죽은 자를 위한 행사의 날

인 것이다.

특히 조상숭배의식이 강하고 우리의 추석 날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민속은 재일 한인사회에 쉽게 수용된다. 오사카의 고정숙씨는 불단 청소를 한 다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며, 묘지 주변을 청소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때로는 스님을 초청하여 독경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적인 요소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많은 재일 한인들은 이 날 제사와 성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7. 11월의 민속

하기에 사는 배석호씨는 자식과 함께 불고기 집을 운영하고 재일교포 1세이다. 그는 손자와 손녀들이 3살, 5살, 7살이 되는 해 11월 15일을 전후로 松陰神社, 樺八幡神社, 神谷神社에 각각 참배하여 아이의 성장을 신사측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한다. 그 때는 가족들이 일본식의 기모노 차림으로 갔다고 한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신사에 참배하여 축하하는 행사를 일본에서는 “시치고산(七五三)”이라 한다.

원래는 남자아이는 5세가 되고, 여자아이는 3세와 7세가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신사에 참배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이었다. 11월 15일로 고정된 것은 에도막부(江戸幕府)의 3대 쇼우군 토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의 4남 토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가 신체가 매우 허약했으나 그가 죽지 않고 무사히 세월을 넘겨 5살 되었을 때 주변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크게 축하연을 열었는데, 그 날이 바로 1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계기로 “시치고산”이 시작되었다는 유래담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행사는 태어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로 인정받기 위하여 치루어지는 통과제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가령 7세가 되면 마을 신사의 우지코(氏子)로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宮座帳에도 정식으로 이름이 기재되었다. 이처럼 마을로부터 구성원으로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7세였

31) 노성환, 「일본 민속 오봉의 연구」 『인문논총(9)』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년), 91쪽

32) 永田久, 앞의 책, 200쪽

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에도시대에 접어들자 중국 元服의 영향으로 남녀 3세를 “카미오키(髮置き)”, 남아의 5세를 “하카마기(袴着)”, 여아 7세를 “오비토키(帶解)”라 하여 축하하는 행사가 널리 보급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고 발전하여 오늘날의 “시치고산(七五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카미오키”란 3세의 남녀가 두발의 기르는 의식이다.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는 머리를 깎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두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머리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둥글게 묶고 주변 머리를 다 깎아 버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헤어 스타일이었다. “카미오키”의 행사 때 하얀 솜으로 만든 면모자를 머리 위에 얹어 백발이 될 때까지 장수하기를 기원했다. 이 때 면 모자를 씌워주는 노인을 “카미오키오야(髮置親)”라 했다.<sup>34)</sup>

“하카마기”란 5세가 된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하카마(겉에 입는 주름 잡힌 하의)”를 걸쳐 입는 의식이다. 5세를 훑이라 하기 때문에 아동이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이다. “하카마”의 허리를 묶어주는 사람을 “하카마오야(袴親)”라 하여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한다. 또 “하카마”를 입을 때 아이에게 관을 씌우고 바둑판 위에 올려놓고 사방으로 향해 신에게 기도를 올리게 한다. 이는 인생을 승부의 장으로서 보고 어느 쪽을 향하여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이 때 관을 씌우는 사람은 “칸무리오야(冠親)”라 하여 그 아이의 일생 동안 후원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때에도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오비토키”란 일곱 살의 여자아이가 지금까지 차고 있었던 오비(허리에 두르는 천)를 풀고 폭이 넓은 어른의 오비를 묶는 의식이다. 이는 영혼이 몸 안에 건실하게 자리잡고 신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비를 선물하는 사람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라를 “오비오야(帶親)”라 하는데, 이 역할은 여성이 했다.<sup>35)</sup> 이처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달라진다. 사회적 신분의 변화에 따라 축하하는 것이 바로 “시치고산(七五三)”

33) 鈴木棠三, 앞의 책, 638쪽

34) 永田久, 앞의 책, 203쪽

35) 永田久, 앞의 책, 204쪽

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민들은 11월 15일을 반드시 지켜지는 집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남아와 여아를 따지지 않는 집도 늘고 있다. 남녀 구분 없이 3·5·7세가 되면 “시치고산”을 행하는데, 그것도 15일이 일요일이 아니면 그 전후로 날짜를 정하여 신사에 가서 신에게 빌고 신사측으로 부터 “치토세아메(千歲飴)”를 받아 들고서 사진관에 들러 기념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와 파티를 여는 것이다. “치토세아메”란 말 그대로 장수를 상징하는 옛으로 그에 걸 맞는 松竹梅와 松鶴이 그려져 있는 봉투에다 붉고 흰 막대기 옛을 넣은 것을 말한다. 옛을 어느 쪽을 잘라도 전래 동화 속의 인물인 키타로(金太郎)의 얼굴이 나오는 것도 있다. 이는 18세기 에도(江戸)의 아사쿠사(淺草)에서 토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잔당 중의 한사람인 히라노시게마사(平野陣九郎重政)이 甚右衛라고 이름을 바꾸어 옛장수를 하면서 발명한 것이라 전해진다.<sup>36)</sup> 이처럼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만 있는 풍속까지 받아들이는 재일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 8. 12월의 민속

### 1) 동지

12월23일 전후로 동지가 있다. 동지는 1년 중에서 태양이 천구상 가장 남단 위치하는 날이다.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날의 민속에는 쇠약해진 태양이 다시 기운을 찾고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원하는 행위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이 날 팔죽을 먹듯이 일본에서도 특별한 음식이 있었다. 대체로 일본 인들은 동짓날 “동지 죽”, “동지 호박”, “동지 콘낙쿠”를 먹는다. 채소가 고갈이 나는 시기이므로 일부러 야채류를 먹어 줌으로써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일종의 약식이었다. 또 동짓날 찬술을 마시고 유자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겨울 내내 감기가 들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어 유자탕으로 목욕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날에는 이를 철저히 지키는 일본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은 재일 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일부분을

36) 永田久, 앞의 책, 204쪽

수용하여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나라의 조정 호씨는 목욕물에 유자를 넣고서 목욕을 하며, 그 날 팔죽은 먹지 않지만 호박은 눈이 좋아진다 하여 호박을 먹는다고 했다. 그리고 하기에 사는 이호연씨(72세)는 호박 말고도 두부와 고래고기 및 작은 멸치를 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는 관서와 야마구찌라는 지역사회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한국문화와의 충돌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자탕의 목욕습관을 의외로 대중목욕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대중 목욕탕의 주인이 솔선하여 5월의 단오 때 창포탕을 만들었듯이 이 날에도 손님을 위해 유자탕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동지를 의식하게 되고 동짓날에는 유자탕으로 목욕한다고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의 권홍일씨는 이 날이 되면 대중목욕탕에서 유자탕을 즐긴다고 하고, 앞의 조정호씨도 집에서 유자탕을 만들기 귀찮으면 대중목욕탕으로 간다고 한다. 대중목욕탕이 없는 하기에 사는 정양호씨는 직접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유자탕을 즐긴다 했으며, 심지어 하기의 최대천씨는 유자를 잘못 이해하여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밀감을 넣은 목욕을 즐긴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의 동지 민속까지 자연스럽게 재일 한인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 2) 토시코시소바

한편 설달 그믐날 재일 한인들은 어떻게 지낼까? 오사카의 고정숙씨는 의외로 이 날 삼계탕을 먹는다고 했다. 이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밀국수를 이 날의 특별식으로 먹었다. 오사카의 김순옥·송정분·金村雄仁, 나라의 정삼수·백형길·조정호·권홍일·이종옥 등 많은 사람들이 메밀국수를 먹는다고 대답했다.

이 날의 메밀국수를 일본어로 “토시코시소바”라 한다. “토시코시(年越)”는 해를 넘긴다는 의미이고, “소바”는 메밀국수를 말한다. 이는 「가늘고도 길게 내년에도 행복을 메밀로 끌어 모으듯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길이가 긴 특성을 가진 면·종류의 음식에 꿰이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면발은 끈과 같은 것이어서 꿰김이 없이 계속 이어주는 연속성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sup>37)</sup>.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다는 사람이 많았다. 조정호씨는 NHK의 가요 홍백전(紅白戰)이 끝난 다음 먹는다고 했고, 권홍송·임인순씨들은 12시경에 먹는다고 했으며, 정삼수씨와 교포 3세의 金村秀夫씨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다고 했다. 하기에서도 대부분의 재일 한인들은 메밀국수를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면류면 안되고 메밀국수라야 하는가 하는데 의문점이 생겨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름대로 이유가 있다. 옛날 금박을 입히는 금박사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금박을 메밀로 만든 경단에 붙여서 모았기 때문에 “메밀로 금을 모은다.”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래서 메밀은 금(재물)을 모으는 상징적인 음식재료가 되었고, 또 그것이 발전하여 그것으로 만든 길다란 면발은 그 모양적 특징에서 “모은 재물을 길게 보존한다.”는 좋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일본인들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동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는 메밀국수이었다.

#### IV. 韓國 歲時風俗의 繼承과 變化

이상에서 보듯이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일본민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우리의 민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세시풍속 중에 어떠한 것들은 일본의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쳐도 그에 맞서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것들은 일본의 것과 합하여져서 사이좋게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일본의 세시풍속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음력을 기준으로 모든 행사를 치루고 있기 때문에 음력의 세시풍속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세시풍속이 공존하거나 아니면 전통의 한국문화가 변화를 겪는 예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37) 노성환, 앞의 논문(2001년), 213-214쪽



## 1. 제사

문화인류학자 이광규는 “가정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례가 조상신을 받드는 제례이다.”고 정의하면서 “재일 한인이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은 제사가 외지생활과 같은 일본인 사회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sup>38)</sup>. 그의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제사방법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문화와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과 변화 그리고 공존의 양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음력과 양력의 갈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력으로 제사를 지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자체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통행사를 양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력으로 제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 즉,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영향도 큰 것이다. 그러므로 음력에서 양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다 한국에서도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김양기는 해석하고 있다.<sup>39)</sup>

그러한 갈등이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제사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그 결과 설날은 양력으로 하되 추석을 음력으로 하는 타협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일본의 법적 공휴일과도 관계가 있다. 즉, 양력의 설날은 일본에서도 공휴일이지만, 양력의 8월 15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일 한인의 입장에서는 양력이든 음력이든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추석을 음력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박장화씨와 오사카의 김순옥 씨, 하기의 배석호씨 등은 설날은 양력으로 하되 추석은 음력으로 한다 하고, 오사카에 사는 김병택씨는 기독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음력 추석 때 조상을 위한 추모예배를 올린다고 한다. 이처럼 설날과 추석 중 음력이 고수되는 경우에는 추석이 단연 높은 것이다.

한편 기제사의 경우에도 음력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오사카의 김

38) 이광규, 앞의 책, 174쪽

39) 김양기, 앞의 논문, 303쪽

순옥씨, 이쿠노구에서 공인회계사를 하는 49세의 고정호씨도 제사는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하기의 경우는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특수한 사정<sup>40)</sup>을 제외하고는 한 집도 없을 만큼 기제사는 음력보다 양력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제사가 음력에서 양력으로 급속하게 바뀌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제사 시간의 변화이다. 그 변화에는 날짜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오사카의 고법택씨의 가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자신들의 가정에서는 추석제사를 음력으로 하는데 오전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추석의 전후로 일요일에 맞추어 가족들이 전원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의 변경은 기제사의 경우는 12시가 넘어서 지내고, 명절제사는 오전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김창관씨는 “과거에는 한 밤중 12시에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7시, 8시에 지내고 있다. 멀리 있는 친척도 늘고, 그러한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다음 날 출근이나 아이들의 학교 가는 일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라의 이종옥씨의 가정은 드물게도 아직까지 음력 설날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모이기 위해서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와 같이 명절제사가 가족들의 편의에 맞추어 가면서 음력 설의 고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회의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그 밖에 기일제사도 토요일에 맞추어 지내거나 또는 9월9일에 모든 조상 제사를 일괄하여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sup>41)</sup>.

셋째 진설품에 대한 변화이다. 재일 교포 김창관씨는 그러한 재일 교포를 위해 병풍을 북으로 치고 동서남북 또는 좌우로 구분하여 제사음식을 놓는 방법 즉, 과일은 밤·대추·감·배의 순서로 놓고, 음식은 어동육서(魚東肉西)·가동

40) N씨의 경우 아버지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었고, 일본에 와서도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두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일본의 어머니는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한국의 어머니는 음력의 날짜만 기억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음력으로 지낸다 한다.

41) 島村恭則, 앞의 논문(2001年), 777쪽

산서(家東山西)·동두미서(東頭尾西)등으로 놓는다고 하면서,<sup>42)</sup> 제사 과일 중에서도 대추·밤·감·배를 강조했다. 그 이유를 대추는 씨앗이 하나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고, 밤은 씨앗이 3개라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3정승을 상징하며, 6개의 씨앗을 가지는 감은 육조판서를 상징하며, 배는 그 씨앗이 8개라서 팔도의 지방장관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43)</sup>.

그러나 이를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사카의 김순옥씨는 일본식 어묵인 “가마보코”와 커피는 고인이 워낙 좋아해서 빠뜨리지 않고 올리고, 과일은 굴·바나나·메론 등을 올린다고 했다. 그리고 나라의 이종옥씨는 고인이 좋아하는 것도 올리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올린다 했다. 그리고 오사카의 고범택씨는 필수적인 과일은 사과·밀감·바나나의 3종류이며, 대추와 밤은 사용하지 않으며, 감은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제사상에 올려지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방법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가난했던 정착 초기에는 제사상이 그야말로 보잘 것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다. 그리하여 곧잘 “옛날은 가난하여 지금처럼 제사상을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도 고기와 생선을 조달하여 제사 때만은 올렸다. 평상시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 때만큼은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제사음식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돌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형편이 좋은 쪽에 속한다.” “볶은 콩과 정화수 한 그릇만을 올렸다. 그래도 제사만큼은 빠뜨릴 수 없었다.” “돼지고기와 떡은 손도 대지 못했다. 기껏해야 닭과 사과정도밖에 올릴 수 없었다.” “정화수 한 그릇과 신문만을 올렸다. 신문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득 담은 밥 한 그릇과 과일로는 밤만 올렸다. 때로는 밤이 비싸 올릴 수 없었을 때는 고구마를 껌아 밤처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sup>44)</sup>.

42) 金昌寬, 『在日の祭り, 祀り』, 『ほるもん文化(1)』(新幹社, 1990年), 112쪽

43) 金昌寬, 앞의 글, 112쪽

44) 島村恭則, 앞의 논문(2001年), 777쪽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원하면 계절과 관계없이 진설물들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경제적인 사정도 과거와는 현격하게 달라졌다. 그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과 의미를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라의 민단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태용씨이다. 그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한학에 대해 조예가 깊은 나이 많은 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

한편 제사를 통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창관씨는 재일 한인의 잡지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여 제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지내야 하며, 절차보다 조상에 대한 정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사카에 사는 유교예절에 조예가 깊은 어느 명가의 노인은 제사날 고인의 영정과 꽃 그리고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묵도하는 것만으로 끝을 낸다고 소개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仁」의 실천이라고 칭송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를 권하고 있다<sup>45)</sup>. 이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 제사의 방법과 그 의미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최근 민단에서는 아예 한국의 성균관에 의뢰하여 그 절차와 의의에 대한 해석의 비디오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었다.

다섯째, 제사의 분할도 약간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오사카에 사는 제주도 출신 김호길씨는 교포 2세이다. 그에 따르면 기제사는 조부모, 모친과 부친의 전처, 부친의 남동생 2명으로 1년에 7번 있는데, 최근 그 제사들을 동생과 나누어 지내고 있다 한다. 그의 동생이 부모와 삼촌의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자신이 지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사의 분할상속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본식 불단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함에 따라 제사의 방법이 일본식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일본식과 한국식이 가미된 절충식의 제사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불단이란 일본인들이 집 안에 조상위패를 모셔놓은 조그마한 장롱을 말한다. 일본인들에게 조상제사란 그 앞에서 승려를 불러 독경을 올리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우리나라

45) 金昌寬, 앞의 글, 114쪽

에는 없는 풍속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단을 구입하여 집에 들여놓는 재일 한인들이 늘고 있다.

나라의 권홍일씨도 그의 부모님이 사망한 후 불단을 구입하였는데, 절에서 받은 부모의 계명으로 위패를 만들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밥과 물 그리고 향을 올리고 있다 한다. 절로부터 계명을 받는다는 것도 일본적이다. 이쿠노구의 카나무라씨는 불단에 부모의 목뼈를 넣어두었고, 위패도 절에서 계명을 받아 만들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저녁으로 밥과 물을 올리는데, 제사 때가 되면 그 불단에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것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한다. 즉, 일본식 불단제사를 그대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죽으면 자기 가족들이 속한 절에서 승려의 이름 즉, 계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후에 출가를 하는 셈이다. 그러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일본인의 조상숭배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나라의 이종옥씨는 가끔 승려를 불러 독경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지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식과 절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 예로서 오사카의 김순옥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불단을 구입하여 집 안에 들여다 놓았는데, 그 속에 안치해놓은 위패는 일본식이 아니라 한국식의 “학생부군신위”로 되어 있고, 사망 후 처음 3개월 간은 하루에 3번 밥과 국 그리고 커피를 올렸고, 그 후에는 하루에 2번 올렸다. 그러기를 1년을 하고 나서 하루에 1번씩 올리고 있다 한다.

그리고 불단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한국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일본 승려를 불러 독경을 하는 일본식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서 나라의 이종옥씨의 집 불단에는 “先祖代之靈位”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제사 때 그 앞에다가 진설물을 차리고 지낸다고 한다. 그리고 하기의 노재운씨는 조상의 제사 때 불단 앞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사진과 위패를 놓고 절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 승려를 불러 독경을 올린다고 한다. 즉, 일본적인 불단에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사와 복합된 불단식 제사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그다지 흔치는 않지만 서서히 일본의 불단이 재일 한인들의 가정에서도 자리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사가 재일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와 접촉함에 따라 갈등과 변화 그리고 공존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설날 제사와 하츠모오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일 한인에게 있어서 설날은 일본인과 같이 양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날 일본의 가정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재일 한인들의 가정에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한국사정을 잘 모르는 일본인은 “정월 초하루부터 제사를 지내나?”하며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설날은 신을 위한 명절이고, 오봉은 조상을 위한 명절로 나누어 생각하므로 설날에는 우리와 같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날 아침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역으로 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신사나 절에 “하츠모오데”를 가는 일본인을 보고 “조상제사도 지내지 않고 놀러 다닐 수 있느냐? 필시 조상으로부터 벌 받겠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재일 한인들은 조상제사를 지내고 하츠모오데를 갔다. 나라에 사는 유대윤씨(58세)는 제사를 지낸 후에 하츠모오데를 간다 하였고, 오사카에 사는 김순옥·송정분·고정숙·한혜숙씨 등에게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옷차림도 개인에 따라 달랐다. 어떤 이는 한복을 입고 간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일본의 키모노를 입고 간다고도 했다. 이처럼 일본 설날의 풍속인 하츠모오데와 키모노가 우리의 제사와 한복과 복합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

## 3. 세찬과 떡국

나라에 사는 이종옥씨는 일본인 며느리를 맞이했다. 그로부터 설날에 준비하는 세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며느리는 일본식 세찬 “오세치”를 준비하고,

자신은 제사를 위한 한국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다. 이처럼 결혼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본의 것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 살다보니 자연히 일본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조정호씨는 설날이 되면 오세치요리를 가게에서 구입하고, 또 떡국도 준비하여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유대윤씨는 오세치는 물론 일본식 떡국인 조오니와 함께 우리나라의 떡국도 준비한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세찬과 함께 항상 변함 없이 등장하는 것이 떡국이다. 그러므로 만일 떡국이 없으면 설날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조차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하기의 제일 한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다. 조사했던 모든 집들이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떡국은 재일한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설날음식이었다.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기의 한국인들은 시모노세키의 한인타운에서, 관서지역의 한인들은 오사카 이쿠노쿠의 한인타운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떡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신자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설날이 되면 여느 일본인처럼 시메나와를 현관에다 내걸고 대청소를 한 뒤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준비하며 설날을 맞이한다. 설날을 맞이할 준비를 다 끝낸 후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잊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떡<sup>46)</sup>이 없어.” 하며 심각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을 했다. “떡, 일본의 모찌가 있으면 되잖아.” 하고 그는 가볍게 받아넘기는 것이었다. “모찌로서는 안돼. 떡이 없으면 설날이 된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 일본의 “조오니”로는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다. 한국의 조오니인 떡국이 없으면 나에게 설날이 오지 않는다. 나의 심각한 눈을 보고 남편은 불안해 한다. “떡을 지금 어디에서 사” “오호구찌(大口)의 조선 건어물상이 있잖아..” “별써 그곳은 문을 닫은지 오래야.” “여하튼 떡이 없으면 곤란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떡 하나로 두 사람은 골머리를 앓았다. 나의 집에서는 옛날부터 설날이 되면 꺼안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큰 차루에 등글게 썰은 떡을 가득 넣어 두었다...(중략)...이 떡만 있으면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좋았다. 떡, 떡하며 야단법석을 떨고있는 동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친정에서 떡을 준비해 있지 않을 리 없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떡을 가

46)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래떡을 말한다. 그녀는 그것과 일본인의 설날의 떡인 모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지러 차를 타고 친정으로 달려갔다. “우리 집도 그렇게 많이 사두지 않았어.” 하며 싫어하는 어머니를 졸라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3일분 정도 얻었다. 이것으로 겨우 나에게도 정상을 되찾은 설날이 찾아오는 것이다.»<sup>47)</sup>

이처럼 그녀에게는 설날음식으로는 일본의 조오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떡국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한국인다움은 설날의 제사와 함께 떡국을 먹는 정도로 여겨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람이 먹는 떡국과 일본사람이 먹는 조오니가 재일한인의 설날의 식탁에 사이좋게 나란히 올라와 있는 것이다.

#### 4. 신년 하례식

2002년 나라현 거류민단의 신년 하례식이 그 해 1월 13일 그들의 본부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재일 한인들이 참석을 하였고, 오사카에 있는 한국의 외교관과 한국문화원장도 본국의 인사로 참석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식순은 개회-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제창, 선열들에 대한 묵념)-대통령의 신년사-지방단장의 인사-중앙단장의 신년축사-내빈 축사 및 소개-만세삼창-鏡開-건배-폐회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식순에서 우리는 선뜻 이해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鏡開라는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경개”란 일본어로 “카가미비라키”라는 하는데, 이는 설날에 도쿄노마에 바쳐진 거울 떡을 1월 11일경에 물러 먹는 행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식이다.

“카가미비라키”의 순서가 되자 그들은 앞에 차려진 나무로 만든 술독의 주위에 둘러 사고, 나무 망치를 들고 뚜껑을 두드려 깨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술을 잔에 부어 건배제의를 하고 폐회사로 넘어갔다. 이러한 의식절차는 매우 일본적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현상은 그것이 끝난 이후부터였다. 모든 의식절차가 끝나고 유희의 시간이 된 것이다. 그러자 미리 준비한 카라오케 박스에 우리나라의 민요 또는 흥려간 옛 노래가 흘러 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에 맞추어 어깨춤을 덩

47) 강신자, 앞의 책, 146-147쪽



실당실 추는 것이었다. 술안주도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돼지고기 수육과 된장 그리고 고추와 마늘이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여기에서도 한국적인 요소와 일본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복합되어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5. 성인식

1월 15일은 성인의 날로 전국 각지에서 성인식을 거행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 날 만 20세가 되는 일본의 젊은 남녀는 정장 및 전통의상을 입고 자기 지역에서 베푸는 성인식에 참석한다. 재일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단측에서 준비하여 거행되었다. 2002년 나라현 민단사무실에서는 1월13일(토)에 성인식을 신년회와 겸하여 행하였다. 성인이 되는 청년들은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으로 모두 6명이었다. 남자들은 양복차림이었으나, 여자들은 모두 치마 저고리의 한복 차림이었다. 한복이 없는 경우에는 기모노를 입는 사람도 있다 한다<sup>48)</sup>.

그런데 그들은 일단 민단측의 성인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베푸는 성인식에 참석하지 않는가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 는 않았다. 그들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자신의 지역에서 주최하는 성인식에 참석할 것이라 대답했다. 만일 그렇다면 성인식 또한 한국과 일본이라는 행사에 이중적으로 참석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민단측보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성인식에 참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사카에 사는 교포 2세 한혜숙씨(57세)는 자신이 성인이 되던 해의 성인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막내딸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일본인들이 주최한 성인식에 참석하였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요즘 부쩍 많아졌다 한다. 이 때 여성인 경우 치마 저고리를 처음으로 입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고정숙씨의 말을 빌리면 그 날 자신의 집에서는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세키한(赤飯)과 붉은 도미 그리고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준비하여 특별식으로 먹었다 한다. 여기에서도 복합성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들은 경사와 축하의 상징물로서 적색을 잘 사용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키한과 붉은 도미는 축

48) 이광규, 앞의 책, 175쪽

하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그러나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잘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미역국이다. 아마 이것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복합되어 제일 한인사회에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다.

## 6. 하나미와 꽃놀이

일본인들은 3월부터 4월에 걸쳐 야외로 나가 꽃을 보며 행락의 날을 보내는 것을 “하나미(花見)”라 한다. 우리나라의 꽃놀이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벚꽃 피는 계절에 벚꽃을 보며 주연을 베푸는 일종의 오락행사이다. 가족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호인 및 친지들이 함께 즐기듯이 단체성이 강한 대표적인 봄의 행사이다. 오사카의 강태자씨는 매년 민단에서 오사카성(大阪城)에서 개최하는 “하나미”에 참가하고 있다 한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하나미”는 민단측의 아예 년중행사로 잡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일본인들과는 특이했는지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자치종합연구센터의 연구부 멤버들이 자신의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의 “하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재일 한인들이 단체로 하나미를 간다고 하기에 일본적인 광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러 갔다. 넓은 공원이어서 그들이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걷노라니 어디선가 타악기를 분주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눈을 돌리니 다른 그룹과는 다른 “하나미” 광경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음악에 맞추어 오로지 춤을 추고 있었다. 각자 내키는 대로 춤을 추고 있는 듯이 보였다. 흐르는 곡은 조선의 민요이다. 그 음과 춤의 힘에 주변의 일본인 그룹들은 압도되어 있었다. 춤이라 해도 예술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봉오도리”와 같은 느낌으로 어깨로 리듬에 맞추어 손을 천천히 움직여 갔다. 그 사람들이 치마. 저고리만 입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마치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한가로움이 춤추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졌다. 앞서부터 울리고 있는 타악기는 조선의 민속악기로 장구라는 북이다...(중략)...하나미에는 젊은 사람들도 와 있었지만, 춤추는 사람들은 1세가 대부분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고 있었다.」<sup>49)</sup>

여기에서 보듯이 비록 “하나미”가 일본인들이 즐기는 꽃놀이로서 별 저항 없이 한국인들에게 수용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즐기는 모습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것이다. 오늘날에는 1세대들이 나이가 많고 또 세상을 등진 사람들도 많다. 그런 탓에 오늘날에는 2세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세대가 바뀌어짐에 따라 “하나미”를 즐기는 모습도 변화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 있고, 또 2세가 그 전통을 계승하여 가는 한 일본의 하나미는 우리의 꽃놀이와 같이 제일 한인사회에서도 어깨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7. 한국사찰과 세시풍속

일본 내 최근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가 포교활동이 활발하다. 오사카에도 우리나라의 불교사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보현사, 대원사, 청광사, 은광원 등이다. 이들 모두 이쿠노구에 집결되어 있다. 그 중 대원사가 제일 본 대한불교회의 본부를 맡고있고, 보현사는 1974년 11월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아 일본에 파견된 조계종의 총본산이다<sup>50)</sup>.

스님의 말씀을 듣는 법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정해진 불공일로는 정초·구정·정월 보름·2월 1일·3월 3일·사월 초파일·5월 단오·6월 유두·7월 칠석·8월 추석·9월 9일·10월 보름·동짓날 등에 불공을 드린다<sup>51)</sup>.

고정숙씨에 의하면 그녀는 매년 초파일이 되면 보현사에 가서 탄생불에나 물을 부어 씻는 관정의식을 하고 법회를 본 다음 쌀과 돈을 불단에 바친다고 한다. 보현사에는 제등행렬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시가행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의 정원에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찰이 없는 하기에서는 초파일을 기념하여 절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의 불교도들도 사월초파일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신자라 하면서도 초파일에 사찰을 찾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9) 神奈川縣自治綜合研究センタ・『神奈川縣の韓國、朝鮮人』(公人社, 1984年), 39-40쪽

50) 이광규, 앞의 책, 107쪽

51) 이광규, 앞의 책, 107 - 108쪽

## 8. 동지 팔죽

나라에서 건축사를 하는 김정치씨는 30대로 교포 2세이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인이며, 그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그러한 그가 어머니 나라보다도 아버지의 나라를 선택했고, 스스로 조국을 알기 위해 연세대 한국어학당으로 유학을 하기도 했다. 그 때 알게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 며느리가 시집을 왔던 첫해 동짓날 팔죽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사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60년 만에 처음 먹어본다 하며 매우 감격했다고 한다.

이처럼 동짓날 팔죽을 먹는 제일 한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한 것은 도시이면 도시일수록 드물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유대윤씨, 이종욱, 그리고 오사카의 강태자씨등은 지금까지 팔죽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으며, 그리고 과거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집도 많았다.

한편 하기에서는 동지 팔죽을 먹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그 이유는 팔죽이 노인과 생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팔죽에 대한 기억이 뚜렷한 노인이 있는 집은 유지되지만, 노인이 가고 세대가 젊은층으로 바뀌면 그 생명도 끝나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오사카의 한혜숙씨(57세)씨처럼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팔죽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카나무라(金村秀夫)씨도 지금은 팔죽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등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온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절에서 팔죽을 하여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 날 절에서 팔죽을 먹는 사람은 많다. 이 경우 한국 절이 많이 모여있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쿠노구에 사는 송정분·고정숙씨는 절에 가서 팔죽을 먹는다 했다. 이처럼 집에서는 하지 않지만 절에서 먹으며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찰이 전통의 세시풍속을 되살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 V. 結 論

이번 조사로 60여만이나 되는 재일 한인의 세시풍속을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그 윤곽은 파악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그들의 세시풍속은 일본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김화경은 재일 교포들은 지금도 귀소본능이 강하며, 일본에 살고 있는 한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설화 또한 일본의 영향이 크지만 그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의식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지만<sup>52)</sup>, 세시풍속에 관한 한 그러한 경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설날이면 “시메나와”. “카도마쓰”. “카카미모찌”로 장식하고, “오세치”. “조오니”를 먹고 신사나 절에 “하츠모오데”를 간다. 또 2월에는 “마메마키”, 3월에는 “히나 마쓰리”, 5월에는 “코이노보리”와 “창포탕”, 7월에는 “조릿대 놀이”를 즐기며, 8월의 오봉에는 조상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11월에는 “시치고산(七五三)”을 행하고, 12월의 동지에는 호박죽, 그믐날에는 “토시코시소바”를 먹는 일본의 풍습 등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민족적 차별을 의식하였음인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이다. 조사 중 오사카에서 만났던 한국에서 시집온 한 여성은 재일 한인 출신인 남편으로부터 철저히 일본인 행세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자기 출신 고향마저 일본의 어느 지역으로 바꾸어 말하는 상황까지 연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불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일본사회에 남아있는 민족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는 일본과의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방편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나라에 사는 어느 한인은 “우리가 싫어도 「토코노마」가 있는 일본 집에 살듯이 일본에 사는 동안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52) 김화경, 앞의 논문, 19쪽

설날이 되면 이웃집에서 다하고 있는 “시메나와”·“카가미모찌” 등을 출입문 또는 실내에 장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일본인과 결혼하였을 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가령 설날에 “오세치”, “조오니”를 준비한다거나 또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3월 3일에 히나 인형을 장식하고, 5월 5일에 “고이노 보리”와 오월의 인형을 장식하고, 또 그들의 딸이 일본인과 결혼하였을 때는 외갓집으로서 그것들을 외손자·외손녀들에게 선물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일종의 타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가령 단오의 창포탕이나 동지의 유자탕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늘 이용하는 목욕탕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그 날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 민속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붉은 색을 경사스러운 색깔로 인식하여 축하할 일이 있으면 팔밥을 먹는대거나 설날에 적돔과 새우를 먹는 경우는 모두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지역보다는 분산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넷째는 자식을 통하여 일본민속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2월의 마메마키, 3월의 히나마쓰리, 5월의 단오, 칠석의 조릿대 세우기 등은 모두 아이들과 관계가 있었다. 그 중 입춘의 마메마키, 칠석의 조릿대 등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월의 히나 인형, 오월의 단오장식을 하는 일부 한인들에게 보았듯이 자기 자식(손자·손녀)들에게도 일본아이들과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본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그 현상은 중원과 세모에서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재일한인들은 평소의 거래처와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자영업을 하는 재일 한인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다. 그리고 설날 장식 가운데서도 “가도마쯔”를 그들의 집보다도 가게에 장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는 한국의 민속과 유사성 때문에 쉽게 수용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

한 현상은 특히 조상숭배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식 날 성묘를 가듯이 “히간”때 성묘를 가고, 또 일본인들이 오봉 때 조상제사를 지내듯이 재일 한인도 그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오봉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추석이 아니라 불교의 세시풍속인 우란분절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7월 15일에 행하였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8월 15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우리의 추석 개념으로서 재일 한인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민속을 수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화를 겪으면서도 일본의 민속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공존하는 끈질기게 이어져 가는 한국의 민속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이었으며, 먹는 고유의 음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춤과 입는 전통의상에서 나타났다. 비록 장소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고, 설날과 동지 때에는 떡국과 팔죽을 먹어야 하며, 여러 친지들과 지인들이 모이는 잔치 때에는 돼지고기 수육(된장·고추·마늘도 함께 등장), 그리고 축하할 이 있을 때는 미역국을 먹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특히 노인층들에게는 신명이 나면 민요와 함께 덩실덩실 추는 우리의 어깨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여성들에 의하여 이어지는 치마저고리도 면면히 이어져 가는 민족의 전통이었다. 이처럼 조상숭배와 음식 그리고 감정표현과 의상이 외국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요소이며, 또 그것이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전통의 세시풍속이 부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특히 한국에서 들어간 불교사찰이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음력과 양력이 모두 적힌 달력을 사용하며, 또 연중행사를 음력을 기준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월초파일의 연등행사나 동지의 팔죽과 같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세시풍속이 다시 부활되는 경우도 있었다.

재일 한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일본의 프로 레슬링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역도산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은 살아있는 동안 철저히 일본인 행세를 했다. 물론 일본국적을 취득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결혼도 일본여성과 했다. 그러한 그에게도 자신의 집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다. 그 방에는 한국과 관련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어렸을 때 즐겼던 세계가 그 속에 다 있었다. 그 속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에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결코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sup>53)</sup>.

이와 같이 재일 한인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자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는다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이게 될지 모르겠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재일 한인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시풍속이라는 테마로 접근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세시풍속이란 비교적 사상적·정치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 적다. 그러므로 쉽게 수용되기 쉬운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조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자리에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인터뷰는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주위에 신경을 쓰는 부자연스러움이 노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 방문을 꺼려 바깥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집 안에 한국과 일본의 민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제사도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설명만 들은 것이라서 그 말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몇 번 접촉을 통하여 처음보다 조금 더 가까워 졌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확인하고, 미처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지 못하면 진정한 재일 한인의 민속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제어: 재일 한인, 아이덴티티, 일본 민속, 문화 변용, 조상숭배

53) 原尻英樹, 앞의 책, 104-105쪽



- \* 조사에 협조해주신 오사카·나라·하기에 사시는 재일 한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에 나오는 이름들은 개인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이광규, 『재일 한국인』 (일조각. 1983년)
- 김양기, 「일본 한인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세계속의 한국문화 -재외 한인의 생활과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세계 한민족 총서(4)』 (통일원. 1996년)
- 김화경, 「재일교포의 민속변용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회. 년)
- 이종구, 장화경, 「재일 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이쿠노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14)』 (성공회대학. 2000년)
- 노성환, 「일본 오봉 민속의 연구」 『인문논총(9)』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년)
- 노성환,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 (교보문고. 1997년)
- 노성환, 「일본의 설날음식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20)』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년)
- 노성환, 「일본의 단오민속」 『경산문화연구(6)』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2002년)
- 노성환, 「일본 칠석 민속의 연구」 『일본문화의 연구(7)』 (동아시아일본학회. 2003년)
- 허점숙, 「재일한국인의 무속신앙-무속과 불교의 습합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40)』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년)
- 岡崎精郎, 「大阪朝鮮-在阪朝鮮人と朝鮮寺の問題を中心に-」 『大阪研究(1)』 <宮本又次編> (清文堂. 1967年)
- 谷富夫, 「朝鮮寺-在日韓國朝鮮人の巫俗と信仰」 『生駒の大神-現代都市の民俗宗教-』 <宗教社會學の會編> (創元社. 1985年)

姜信子, 『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 ご　ごきら 普通の在日韓國人』(朝日文庫. 1990年)

金昌寬, 『在日祭祀』 『ほるもん文化(1)』 <文化編輯委員會>(新幹社. 1990年)

福岡安則, 『在日韓國人. 朝鮮人』(中公新書. 1993年)

原尻英樹, 『在日からとしてのコリアン』(講談社現代新書. 1998年)

島村恭則, 『在日朝鮮人の民俗誌』,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91)』(國立歴史民俗博物館. 2001年)

島村恭則, 『境界都市の民俗學 -下關 朝鮮半島系住民』 『越境』 <篠原徹編>(朝倉書店. 2003年)

飯田剛史,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世界思想社. 2002年)

<Abstract>

## A Study of Korean Japanese seasonal customs

No, Sung-Hwan

Just three times researches can't completely reveal whole new year's day customs of six hundred thousand Korean Japanese. This study is completed from the data of the first research, and so might not be perfect.

Also,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 Korean Japanese may keep a distance from strangers at first and just show some parts as much as they feel comfortable.

Although there are some variables like the above mentioned, what I am sure is that traditional Japanese customs have influenced on the Korean Japanese new year's day customs heavily.

A forktale research worker, Kim Wha Kyung said that in the tale transmission Korean Japanese have been affected by Japanese but also they have kept strict watch against being the same with Japanese. In the case of new year's day customs, it is hardly found that.

On new year's day Korean Japanese also prepare SIMENAWA, KADOMATSU, KAGAMIMOCCHI, OSECHI. ZOUNI and go to HATSUMODE and enjoy MAMEMAKI in February, HINAMATSURI in March, KOINOBORI and iris flowers bath in May, TANABANA in July, OBON in August, have pumpkin gruel taken on the winter solstice in December, TOSIKOSISOBA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which is easily founded among Korean Japanese.

Even someone having strong ethnic identity has accepted these traditions without resistance. Especially on OTSUGEN and OSEIBO giving presents to

business acquaintances, customers and kind people who have been showing favor during a year is repeated among Korean Japanese. Living in Japan, Korean Japanese had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Japanese- not a matter of ethnical concern but a matter of an adaptation to the new circumstances- and these are a natural consequence. And these can help Korean make harmony and coexist with Japanese without serious troubles through historic occasions.

Performing ancestral rites and rice-cake soup on new year's day, adzuki bean gruel taken on the winter solstice have been stubbornly transmitted and coexisted with Japanese traditions. There are a strong will to keep ethnical identity following Korean traditions and activities by Korean Buddhists which should not be ignored the effect and need more researches.

Key words: Korean Japanese. ethnic identity. Japanese forkore. cultural transformation. ancestral worship